

‘수시 미등록’ 대입선발 변수... SKY 줄고 건동홍시 늘어

(건국대·동국대·홍익대·서울시립대)

정시모집 원서접수 본격 개시
수험생수 줄면서 이월 규모 ↓
서울대 47명 늘어 798명 선발
“최종 선발인원 꼼꼼히 확인해야”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7일 시작되면서 대학 최종 선발인원 규모에 수험생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입 최종 선발인원 규모는 정시 선발 인원 외에 수시 미충원에 따른 이월 인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 입시에서는 최상위권 대학 수시 이월 인원은 감소했지만 중상위권 이하 대학은 이월 인원이 늘면서 대학별 편차가 심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수시 이월 인원 전년 대비 27% ↓ ...연·고대도 줄어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서울 최상위권 주요 대학의 수시 이월 인원이 전년보다 줄었다.

서울대는 이번 정시 기준 일반전형에서 애초 계획보다 47명이 늘어난 798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서울대 수시 이월 인원은 175명으로, 올해는 3분의 1 이상 줄었다.

정시내군에서 선발하는 연세대는 수시 이월 인원이 206명, 고려대는 140명

(2021학년도 주요대 시기별 모집인원, 비율 및 수시 이월 인원(정원내 기준))

대학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수시이월인원	최초-최종비율차이	수시이월인원	최초-최종비율차이
건국대(서울)	38	1.3	22	0.7
고려대(서울)	140	3.5	216	5.6
동국대(서울)	66	2.4	49	1.8
서울대	47	1.5	175	5.5
서울시립대	107	6.1	97	5.7
숙명여대	58	2.7	25	1.2
연세대(서울)	206	5.9	242	7.0
이화여대	97	3.2	99	3.3
중앙대	36	0.8	63	1.5
한국외대(서울)	9	0.5	21	1.3
한양대(서울)	24	0.8	25	0.9
홍익대(서울)	1669	7.1	88	3.7

가나다순.

/유웨이

이다. 지난해 각각 242명, 21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준 수치다. 이는 정시 모집 인원 확대 정책과 학령인구의 감소와 현상이 맞물리면서 서울 최상위권 주요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우수 지원자를 선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능최저를 완화한 것을 비롯해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제도적으로 예치금을 넣지 않고도 문서만으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등록 시스템도 만들었다.

진학사의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 수가 감소해 지난해 대비 올해 수시 이월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도 있지만, 특히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

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 이를 충족한 수험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려대와 연세대도 코로나로 인해 정시에서 불안감을 느낀 수험생들이 대거 수시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수능 난이도가 평이함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로 인한 이월 인원 변화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의 1등급 인원은 크게 늘었으나 수험생 감소, 수능 결시율 증가로 영어 외 대부분 영역에서는 상위 등급자가 줄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자로 인한 이월 인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위권 이하 대학 수시 이월 인원 ↑ ...의학 계열도 중복 합격생 이탈

반면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이월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발생했다. 수시 선발 인원이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수험생은 감소해 수시 충원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시 일정이 연기되면서 수시 충원기간이 단축된 것 역시 이월 인원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에서 더 많은 수시 미등록 이월 인원이 발생한다. 자연계열에서 중복으로 합격한 최상위권 수험생의 학계열로 빠져나가면서 연세 이월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대에서 수시 이월 인원이 많은 학과는 대부분 자연계열로 전기전자공학부에서 28명이 이월돼 가장 많았다. 기계공학부 16명, 화공생명공학과 13명, 수학과 8명, 신소재공학부 6명이 이월됐다. 인문계열에서는 영어영문학과 6명이 이월됐다.

지난 2020학년도 수시 이월 인원은 자연계열에서 두드러졌다. 당시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는 자연계열에서 각각 157명과 153명, 142명 학생이 정시에서

수시로 선발 인원이 이월됐다.

◆수시 미충원 인원 이월돼 정시에 추가되는 학과 눈길

수시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해 정시로 선발 인원이 넘어오는 학과도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를 비롯해 교육학과, 동양학과 등이 수시모집 완료 후 미충원 인원으로 인해 새롭게 정시모집에 추가됐다.

이만기 소장은 “최초 계획에는 빠져있어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덜할 수 있어 원서접수 직전에 최종 선발 학과와 인원을 확인하고 실시간 경쟁률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8개교는 정시에서 총 8만 7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시 이월 인원을 더하면 최종 선발 인원은 늘어난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정시 원서접수는 각 대학이 기간 내 3일 이상 원서 지원을 받는다. 수험생들은 표준 공동원서 접수서비스를 대행하는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3학년 신학기 ‘미니 자유학기제’ 도입

서울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시수·시기 등 교육과정 학교별 편성
1학년은 기본학력 향상 중점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부터 중학교 2·3학년들에게 자유학년제 취지에 맞는 ‘미니자유학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는 기본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이 1년 동안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참여형 수업과 진로체험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경험하는 제도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전면 도입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난 학습격차, 기본학력 부실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이 강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기본학력보장 집중시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본 학력을 진단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학교는 학생 맞춤형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 특성상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책도 내놨다.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해 학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연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기별로 2회 이상 각 가정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해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학생이 참여해 즉각적으로 교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토의·토론, 프로젝트 등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중학교 2·3학년은 중간·기말고사 사이나 기말고사 이후 학기 말에 자유학년제 취지와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각 학교는 보다 자율성을 갖고 이 같은 교육과정을 편성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기별 개설 영역, 영역별 운영 시수·시기·시간대, 교과별 조정 시수 등은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병동 외경.

/KAIST

KAIST, 코로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

중증 환자 전용... 15분내 설치 가능

국내 연구진이 중증 감염병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음압 병상이나 선별 진료소로 신속하게 변형, 개조해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지는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병상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IST는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사업단이 작년 7월부터 한국형 방역패키지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해 온 ‘이동형 음압병동(MCM)’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산업디자인학과 남택진 교수팀이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은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 격리 시설로 신속히 변형하거나 개조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단검사·영상의학·의료물품 공급·의무기록 관리와 환자 식사 제공 등 기존 병원 인프라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4개의 중환자 병상을 갖춘 병동을 설치

한 후, 의료진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의 환자그룹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KAIST는 이달 15일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한 후 사용성과 안정성 등 임상 검증한 후 본격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약 450㎡(136평) 규모로 가로 15×세로 30m 크기다. 음압 시설을 갖춘 중환자 케어용 전실과 4개의 음압병실, 간호스테이션 및 탈의실, 보관실, 의료진실로 꾸며져 있다. 음압 프레임, 에어 텐트, 기능 패널 등을 갖춰 부품을 조합해 음압 병상이나 선별진료소 등으로 변형, 개조할 수 있다. 음압 프레임이 양방향으로 압력을 조절해 양 쪽 에어 텐트 공간을 효과적으로 음압화하는 원리가 적용된다. 특히 기존 중환자 병상을 음압 병상으로 전환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전실과 병실로 구성된 이동형 음압병동이 기본 유닛은 모듈 재료가 현장에 준비된 상태에선 15분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세종대, 창의 비행체 경진대회서 수상

무인항공기 동아리 ‘sUAV’

세종대는 무인항공기 동아리 ‘sUAV’가 부산대 총장배 창의 비행체 경진대회에서 대학부 임무 수행 회전의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임무 수행을 위한 창의적 비행체를 제작해 비행 조종하는 대회다. 회전의 부분 임무는 드론에 달린 미션 장치를 통해 테니스 공을 투입구에 옮기는 미션이었다.

‘sUAV’는 큰 중량의 물체 이송이 가능한 드론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 축과 풀리를 DC모터에 연결해 개폐구를 구동해 미션을 수행했다. 대회에는 ‘sUAV’의 금강산(기계공학전공·17학년), 박진우(기계공학전공·17학년), 정성준(항공우주공학전공·17학년), 김현중(항공우주공학전공·18학년), 유준상(항공우주공학전공·18학년) 학생이 출전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박진우, 금강산, 김현중, 정성준, 유준상 학생. /세종대

/이현진 기자